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3
Mar. 2017
Vol.5 No.3

- 주안에만남
- 주안에라이프
- 채플 소식
- 교육부 소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자녀의 삶"

■ 가정사역축제

북가주에서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오 목사, 김새라 사모를 초청해 지난 3월 4일 아침 9시부터 5시 까지 LA채플에서 세채플의 성인과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함께 하는 가정사역축제가 열렸다.



다. 임직 예정자들에게는 3클래스 중 최소 2클래스는 필수라고 공고되자 임직 예정자들이 어떤 클래스 2개를 들을까 고민을 하는 듯 했으나 막상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미리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들을 안타까워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다.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연행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중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었다. 우리가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이에 이 말도 안될 것 같았던 사상과 가치관들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내 이웃을 파고 들어와 이내 나의 교회 안에서조차 이슈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이 우리의 다음세대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에 마주한 이 날은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약간의 조급함과 나아갈 길에 가로등을 켜는 시간이 되었다.

무너져 가는 내가 사는 이 시간, 내 이웃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또다른 이들의 선교, 시대참여라는 숙제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또 다른 지상명령이었다. 지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동성애, 마약, 각종 중독 등이 번져가는 동안 우리는 혹시 죄인이 도망쳐 목숨을 구했던 도피성에 나 자신을 가두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내가 참된 빛이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나서야 했다는 걸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한편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듣는 것과 전혀 다른 통계를 전해 들으며 생각보다 이 세상이 그렇게 심하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안심하는 동시에 왜 이 적은 무리들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이치롭 소란스럽게 하며 왜 우리는 이들을 방치하는지 심히 궁금해졌다.

극소수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속한 보편적인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들이 “범”이라는 강제성을 띄며 나의 삶을 점령하는 이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다. 이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된 영적 전쟁이다.
(11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하나님의 말씀, 삶에 적용해 풍성한 열매를”



■ 주안에삶

주안에교회에 등록을 하고나면 단계별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 중 가장 첫번째 단계인 "주안에삶" 이 3월 7일, 8일부터 LA채플, 벨리채플에서 오픈이 되었다.

LA채플은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장년 2반(1권 2반) 과 청년 2반(1권, 2권 각 1반씩) 총 4반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참가 훈련생은 모두 18명이고 인도자로는, 구승환 장로, 김규실 피택권사, 민에스더 피택권사, 김윤영 간사 그리고 평사원 스텝 분들이 섬기게 된다. 벨리채플에서는 장

년 2권과 3권 반이 1개씩 열렸으며, 안진호 피택안수집사와 안희성 피택권사가 인도자로 세워졌다.

첫날 모임은 예비훈련으로 진행되어 찬양과 이현욱 목사(LA채플), 양국민 전도사(벨리채플) 의 기도와 설교에 이어서 훈련지침과 인도자소개 그리고 반별모임으로 서로의 얼굴을 익힌 후에, 앞으로 7주간의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안에삶" 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훈련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훈련생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돕는 훈련으

로 "풍요로운 삶" 교재를 이용하여 예비교육을 포함한 권당 7주간, 3권의 과정을 총 21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자칫 길게 느껴져서 시작하는데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몇번만 지나고 나면 다음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유익한 내용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로, 3권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훈련이다.

리더쉽훈련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주안에삶" 을 통하여서 훈련생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올바른 신앙생활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가기를 기도드린다.

| 오희경 기자 |

“설레는 개학, 반가운 얼굴... 배움은 즐겁다”

■ 주안에라이프

주안에라이프 2017년 봄학기가 지난 3월 1일 수요일 벨리채플에서 개강하였다. 90여명의 어르신들이 낯설지만 설레이는 배움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보였다.

이번학기에 신설된 사진클래스와 합창교실을 포함 탁구, 베드민턴, 컴퓨터, 핸드폰, 하모니카, 키보드 클래스 등 다양한 과목이 12주 동안 운영된다.

연령대가 60세에서 90세 이상인 것에 비해 모두 열정적이고 의욕넘치게 참여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강사진과 봉사자들을 격려하여 마음을 더해 준비하게 한다. 강사진은 연세지긋한 어르신들의 열심에 더욱 꼼꼼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그런 강사진의 성의가 어르신들의 참여도를 높여 숙제라도 내드리면 학창시절에도 이렇게 열심히 잘하셨을까 싶게 성실히 해오신다. 이런 서로를 향한 마음의 소통이 주안에라이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

주안에라이프에서 빠지면 안되는 식사. 언제



나 그랬듯이 우렁각시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시는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가 주안에라이프의 브랜드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안에라이프가 있는 수요일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찾게 하여 몸이 아닌 마음으로 청춘불패를 외치게 한다. 비록 몸은 청춘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듯 여기 저기 조금씩 불편하지만 마음은 그 어떤 청춘보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주안에라이프가 되길 기대한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번지는 미소가 서로를 위로하고, 어르신들의 수고스러웠던 지난 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봉사하는 손길들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우리에게 이러한 나눔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의 수고가 내일을 보상한다 장담할 수 없는 허망한 세상을 살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남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길 희망한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만남(벨리채플)



유영숙 집사



박정규 집사



설구혜 집사



유제니 성도



서부남 집사



김성아 성도



임인숙 집사

“삶에 새 힘을 준 은혜로운 말씀... 감사와 기쁨이”

3월 5일 오후 1시 101호실에서 제 9차 주안에 만남이 14명의 봉사자들의 봉사의 손길을 받아 치러졌다.

조총홍 장로/김선희 권사, 서중환 집사/음경숙 권사, 신세균 목사/신상은 사모, 최종호/이은희 집사, 김성아 성도, 서부남 집사, 승우철 성도, 유영숙 집사, 유권열/수원 집사, 조선환 집사, 임인숙 집사, 박정규/최희정 집사, 유제니 성도, 송대섭/승희 집사, 양창순 집사, 설구혜 집사, 양성희 집사, 이석기/진영 집사, 양윤석/이선민 집사, 임Sean/Lauren 성도 등 모두 29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 중 승우철 성도는 KM에 속한 박신정 성도와 만나면서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주일이 일요일이 되었는데 아내를 만나 까맣게 잊고 있는, 마음 속 깊숙히 밀어 놓았던 성령이 깨어 점점 커졌다 한다. 담임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와 마주보는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겠다 다짐한다.

또한 김성아 성도는 아들을 미국으로 여학 연수를 보낸 것이 생각지도 않게 교회를 일주일에 두세번을 오르내리게 되어 본인도 살짝 당황스럽다고 한다.

아직 입에도 설고 들어도 쉬 잊어버리는 이름, 지명과 문장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져서 주안에 말씀을 등록하고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릴지라도 열심히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직장생활로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었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루 하루가 새롭다고 한다.

유영숙 집사님도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바쁠수록 시간을 쪼개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등록한 주안에말씀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다짐한다. 또 듣고 보니 당연한,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해석해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

텍사스에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지 벌써 6개월이 넘은 조선환 집사님은 주안에만남에서 만난 것이 의아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 구역봉사는 물론 선생님이 부족하여 발을 동동 구르던 ICY에 선생님이 헌신하고 있으며 4형제중 막내는 ICKIDZ의 귀염둥이가 된지 오래다.

최혁목사님은 이날 교회는 많은 출석교인이 아닌 올바른 리더

쉽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기본 뼈대를 전하며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자 하였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기도로 소통하며 돌봄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하였다.

주안에만남이 횡수가 늘어날수록 교인이 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주안에교회가 말씀의 반석위에 더욱더 견고해지길 기도한다. | 채은영 기자 |



양성희 집사



이석기/진영 집사, 양윤석/이선민 집사, 임Sean/Lauren 성도



신세균 목사/신상은 사모



송대섭/승희 집사



유권열/수원 집사



박신정/승우철 성도



서중환 집사/음경숙 권사



조총홍 장로/김선희 권사

■ 주안에만남(플러튼채플)



신정옥 집사



성정민 집사



이현주B 집사



정강수 안수집사



김에스터B 권사



박엘렌 집사



최중권 안수집사

“성령의 인도하심...” 처음 만났지만 금방 한가족



니다. 이 분이 바로 그 CD를 골프장에서 전해 준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분은 지금까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같이 골프를 치던 남자에게 CD를 전해주었는데 그 분을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의도 없이, 무심코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역사하심이 담겨있고, 이것이 이 날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소개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주안에교회의 설립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목회 철학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사원의 교육과정을 설명하시고 모든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인수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주안에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길에 서려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 조성운 기자 |

3월 12일 주일, 플러튼채플에서 주안에만남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새 교우 30여 명을 모시고 최혁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첫 순서는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른 분들이 모였지만 주안에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갈급한 영혼들을 주안에교회로 이끄는 지남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임에서 정말 놀라

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중권 집사님은 아내가 오래 전부터 주안에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본인이 고집을 펴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골프장에 가서 우연히(?) 팀을 이룬 여자 분과 골프를 함께 치는데 중반쯤에 그 여자 분이 설교 CD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날 받은 CD를 차에 두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보고 이 교회가 자기 가자고 조르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그 자리에서 응낙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바로 주안에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차례가 된 제인 오권사님의 말입



오제인 권사



김혜경D 집사



차테리 집사



허현주 집사



장성은 집사



조윤주 성도



서희전 성도



박종진 집사



이미숙B 집사



강인형 집사



김수미 집사



정춘자 집사



주은미 집사



원성칠 장로



홍일구 집사



신상에 집사

■ 가정사역축제 소감



The True Truth

Addictions, drugs, sex, different beliefs. All these things are ideas and thoughts that are so commonly publicized in the media today. How can teenagers not be influenced by it all? How do Christians fight back the norm?

At Real Talk, the three speakers talked about many things that are very needed in this day and age. Something that stuck out to me was something Lisa Stribling said. Her advice for people with addictions was to leave them alone. Support and getting involved will only lead to your suffering. Most would assume that the best way to help someone with addiction is to be there for them and to support their struggle. However, Stribling stresses how damaging this is to us. Our "help" is not only damaging to us, but not effective at all. It's a waste of time. Rather, it is better for us to separate them from our lives completely. However, she does not deny helping people; only help when help is asked for.

She also gave people tricks and tips on how to break a habit. For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an addiction she offered a

21day plan that is supposed to help break addictions. A calendar is needed to mark off 21days and to document how each day was. The beginning of course would be the most difficult. She encourages people to document each struggle and each urge so that day by day, progress will be seen.

Another speaker that stood out to me was Neil Mammen. He spoke about different religi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o Christianity. Each religion was shown to have almost made up doctrines in contrast to Christian doctrines that have logical reasons. Through this, he introduces apologetics, which is the defence of faith through the use of logic. With this, Mammen uses his logic skills to tear down two common statements used against the Christian faith.

The first was that all religions are the same. However, after carefully analyzing each religion, he concluded that all religions are in fact, not the same. Each one had its similarities, but each religion also had its differences. Mammen then concluded with the doctrines of Christianity. Like the other religions, Christianity had its similarities how-

ever, definitely stood out, at least to me, to be the most logically sound: a perfect balance between faith and reason.

This then leads to the second statement that all faith is blind; the opposite of blind faith is no faith. But, Mammen tells us that the opposite of blind faith is in fact rational faith. Rational faith is based off of reason, logic, historical evidence, etc. Through this, he leads back to the beginning to support that apologetics is an important skill for Christians to have so that they may not only believe what Christians believe but to protect what they believe as well.

Overall, the seminar proved to be extremely helpful and beneficial for teenagers of this era. We all struggle with these topics, whether that be personally or due to a relationship. However, we are now all equipped to fight back the attacks of this world and defend the true Truth that stands among a world of misunderstanding.



Phebe Chang
(Valley ICY)



■ 주안에말씀 간증



Alive in the Word

Every Saturday when I went to church to read the bible with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was encouraged and had a different experience compared to reading on my own. Even though it was noisy, I was able to see people who wanted to eat God's words. I was really happy to see that because I believe with all my heart that God's word is true and perfect. As John 1:1 states, the word is God.

Out of all the Saturdays, the first Saturday is going to be a long lasting memory for me since each of us had a different version of the bible and we read it aloud so it seemed like we were speaking different topics at the same time. But what mattered was that we were reading God's word. It does not matter if we read in different versions, as long it was the word of God. As I read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was blessed and encouraged since we could encourage one another. I was really glad that we all could eat the Lord's word and experience his love by the words. I hope that through IC WORD we all could love and adore God's word more.

Even though IC WORD ended, I do not consider it as an end but rather a new beginning! I believe it was God's will to encourage my brother and sisters in Christ to continue reading the bible even if IC WORD does not continue.



Joann Kim
(Fullerton ICY)

Blessed Reading

IC Word, a program I participated with a committed heart, was very beneficial for me. Although I am a spiritual leader who serves as a teacher in IC Youth, there were many days when I failed to motivate myself to read the Bible. IC Word, however, helped me commit again to read the Bible consistently. It wasn't just the program itself that disciplined me to read the New Testament but the companions in Christ helped each other to become passionate about reading by keeping each other accountable.

The program itself was well-planned out in that the reading portion each day was sufficient but not too much to read on daily basis. It was easy to grasp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what is in the New Testament after reading it. In addition, I liked the system in which all the participants read together on one particular day so that we can more easily understand as well as bond together.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read the Bible in a way that was different from the normal routine. With this experience of getting blessed through a well-formed program, IC Word, which made me say, "I see Word," I assume that it is going to advance to include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future. If the program is open again for the Old Testament, I will joyfully be the first one to join it.



Brandon Chae
(Valley EM)

Unity in the Word

Being a student of a bible college, I'm constantly immersed in the Word. God is a daily topic of discussion - we have whole discussions revolving around books of the bible or biblical principles. My classmates and I pray for one another after morning devotionals, and debate about doctrine and hermeneutics over lunch. And I've found that it's so easy to take all of it for granted.

The bible, as I've been told many times by many people, is a love letter, a guide, a gift, a map, etc. This is not how I have treated it; in recent years, it's been little more to me than homework. Rarely have I taken the time to spend time with God when reading the bible or consider the spirituality of the content.

While difficult, the task of reading the bible was not an entirely new one to me. The experience of doing it with other people, however, was. Sitting in a stuffy room, having to resist the urge to go to the bathroom, swallowing constantly to keep my throat from going completely dry - I never thought that it could be enjoyable. Being able to read the bible while approaching it in a way that elucidated my understanding of God's message, being able to read with brothers and sisters on such a unifying level, was surprisingly beneficial to me. Reading together, in a singular voice, breathing almost as if we were one organism, brought new meaning to the phrase "body of Christ."



Kaitlin Yi
(Fullerton EM)

■ 기도국(LA채플)

"예배를 위한 기도 일심동체"

누군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영접하는 일은 자녀 본인들만이 해야 하며 일심동체라는 부부간에도 믿음 좋은 아내 덕분에 남편도 함께 전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의 통로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할 수도 있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위해, 또는 특별집회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팀들과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목사님들은 그 기도의 힘을 느끼시고 더욱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 하신다는 간증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중한 기도사역을 하는 LA 채플 기도국을 찾아 은혜를 나눕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늘 기도실에서 남이 안보는 데서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LA 채플 기도국은 국장에 류은호 피택권사, 팀장에 전정자 권사가 수고하시며 팀원으로는 이덕중 권사, 권순희 권사, 김정혜 권사, 김해정 권사, 이춘희 피택권사, 민에스터 피택권사, 윤재숙 집사, 박진영 집사, 정봉이 집사, 권한나 집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팀장님과 여러 팀원들은 매주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5분까지 교인들의 예배준비를 위해 기도하며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는 2부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요 코람데오 예배를 위해 6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기도국 팀원 모두가 중보기도를 하고 플러튼 채플의 전테리 집사님과 이현주 집사님이 매주 목요일 코람데오 예배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여 환우들과 한국과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팀원들은 각자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주안예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팀원 상호간에도 매일 전화와 여러 매체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로 주님이 안위하심을 기원하고 신앙적으로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힘쓴다고 합니다.

류은호 국장님은 기도국에서 봉사하며 교회 예배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활동을 통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더 많은 교우들이 기도국 중보기도 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7월에 있게 될 기도학교를 기다리며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훈련으로 하나님의 성인 주안예교회를 기도로 파수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함을 말씀합니다. | 나형철 기자 |

■ 브니엘(벨리채플)

"성도들을 행복하게" 미소 활짝

브니엘 사역국은 사역국 봉사자가 5명뿐인 진정한 소수정예라 하겠다. 아주 작은 공간, 극히 제한적인 봉사를 하는듯 보이나 벨리채플의 친교와 행복, 내 집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특별한 사역국 "브니엘" 을 소개한다.

저녁식사를 못하고 쫓기듯이 예배를 참석하는 허기진 성도들의 간단한 요기를 위해 임용자 권사님은 항상 종종걸음으로 무엇인가 잔뜩 실린 카트를 밀면서 친교실로 등장하신다. 또한 특별새벽기도가 있는 평일 역시 브니엘카페에는 불이 들어온다. 우리가 브니엘이 없었을 때 어떻게 교제를 나눴을까 싶은 정도로 우리교회의 대표명물이 된지 오래다.

브니엘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은 최고의 품질과 임권사님의 수고와 사랑이 가득 담긴 아이템이라 단언한다. 스타벅스보다 월등한 커피와 다양한 차,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젤리곰은 권사님이

개별포장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우리가 즐겨 먹는 스낵류도 어디서 세일을 하는지 항상 눈여겨보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



동하여 우리의 입과 주머니를 행복하게 한다. 카운터가 항상 바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주문하기 미안한 카라멜 마끼야또는 정말 일품이고 금요일 저녁 떡국도 저녁 한끼를 때우기 제격이다.

우렁각시처럼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가 언제 재충전을 할까 싶지만 매월 첫째주 1부 예배 후 오전 10시 임용자 권사님을 포함 김은영 집사님, 박경숙 피택권사님, 오해수 집사님 및 이정미 집사님 5명 전원이 항상 자체평가 및 기도회를 갖는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것이며 무엇으로 좀더 많은 실적을 올려 교회에 힘을 보탬 것인가를 고심한다.

이런 수고는 지난 해 재정보고 때 우리가 보았듯이 단 5개월동안 7천불이 넘는 매출, 순수이익의 5천불 이상을 만들어 선교 및 구제헌금으로 삼겼다. 커피 한잔에 \$1.50의 적은 돈이 이렇게 큰 액수를 만들기까지 브니엘 사역국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큰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브니엘 사역국의 특별한 시스템은 바로 팀원들의 봉사 스케줄이 없다는 점이다. 절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라지만 그 자리가 비어있었던 적이 없는 것은 바로 5명 모두의 시선이 항상 브니엘에 닿아있기 때문이다. 카운터에 일손이 딸린다 싶으면 바람처럼 도움의 손길이 옆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길 원하는 임용자 권사님을 포함한 4명의 팀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확연히 보이는 의무감 없는 자율시스템이다.

주안예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국. 그중에 하나인 브니엘, 교회 한쪽 구석 어찌던 아무 의미 없을 수 있는 그곳이 사랑이 되고 내집 거실같은 편안함을 만들어주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족이 되게 하여주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채은영 기자 |

■ 마하나임 성가대 단합대회
(플러튼채플)

하늘길 여는 찬양... 마음 활짝 '코이노니아'

플러튼채플의 마하나임 성가대가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단합대회는 엘토의 파트장으로 봉사하시는 신지온 집사님께서 대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위치한 중국집에서 20여 명의 대원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임원들이 30분 전에 모여 임원회를 가졌습니다. 박현동 목사님께서 성가대원들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셔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매주일 이른 아침에 모여 강도 높은 연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드리는 마하나임 성가대에게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매주 올려드리는 찬양이 교회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무가 준비한 각자의 취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해 온 것을 보며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취미는 요리, 여행,



음악 감상, 등산 등등이고, 하고 싶은 일, 소원, 기도제목 등등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대원들이 교회와 마하나임 성가대에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주안교회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고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지태 집사님께서 찬양 곡을 직접 만드는 분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본인이 만드신 찬양 곡을 여러 곡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만드신 곡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부르신 곡 가운데 한 곡을 골라 4부로 만들어 성가대에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날 성가대 단합대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척추측만증 세미나
(플러튼채플)

“스마트폰·컴퓨터로 부터 목건강 지키세요”

플러튼채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척추 측만증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사이신 최유림 성도님은 카이로프랙터로 특히 어린이 척추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한의학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교우들에게 나누어주시려고 매달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어린이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강의해 주십니다.

이날은 어린이들이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요법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실질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 많은 사람들의 척추와 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의 7-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목과 거북목 현상을 보이는데 모두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오는 병입니다. 이 일자목과 거북목은 목 디스크의 전초가 됩니다. 이런 병은 예전에는 5-60대에서 보이던 병이지만 요즘은 2-30대에 많이 나타나고 특히 십대나 어린이들에게서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목이라는 병은 X-Ray를 찍으면 목뼈가 C자로 보여야 정상인데 1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어깨가 말린다고 하여 평상시에 어깨를 비롯한 상체가 앞으로 움츠러들고 목이 앞으로 수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턱을 안으로 당겨야 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는 작은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양쪽으로 벌렸다 앞으로 짚는 것을 수십번 정도 매일 한 번 이상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Butterfly운동'이라고도 하

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발달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목에다 바친 채로 눕고, 양팔을 벌리고 20분 정도 누워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런 자세로 잠이 들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 증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는 스탠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일관되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스트레칭 운동을 하십시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이 늘려서 오는 것입니다. 엉덩이와 다리 근육을 평상시에 늘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주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강사님께서 실질적인 많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비단 어린이와 학부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앞으로 이 세미나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드림교구 온천여행

촉촉한 단비·아름다운 섬김... 하나님께 감사

지난 2월 26일(1박 2일)에 드림구역을 위한 목회부의 배려로 나무꾼과 선녀가 되어 준비된 대형버스에 31명이 몸과 마음을 싣고 140miles 을 달려간 곳은 말만 들어도 피곤이 풀리는 Desert Hot Springs Spa(팜스 유성 온천) 였습니다.

올해는 기대이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차창 밖에 보이는 땅에 가뭄이 촉촉히 젖은 땅으로 변하여, 나무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빛을 자랑하며 우리들의 여정을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PALM SPRING 북쪽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로서 인디언들에 의해 발견된 미네랄이 많은 온천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며 요통,루마티즘 관절염, 혈액순환장애, 타박상, 피부미용 등을 위한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도착하여 4명씩 방배치를 받고, 미네랄로 가득찬 온천탕과 수영장 등을 통해 심신을 쉬고 나서, 수하여행 떠난 심정으로 밤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성도의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졌 습니다.



식사 때마다 진수성찬을 직접 준비한 손길들을 생각하며 고



맙고도 미안한 마음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기쁨으로 마음껏 즐겼습니다.

오고가는 버스 안에서와 시간마다 쉬지 않고 준비하신 상품들을 퀴즈와 보물찾기 등으로 나누어 주신것도 으뜸가는 즐거움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장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편안할 때도 있었고, 계절따라, 나이따라, 환경따라 욕심의 방향이 변하는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젊어서는 어린시절을 그리워 하며 미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대도 해보았지만,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고 보니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황금시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고맙다, 사랑한다, 좋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하며 살았지만, 오감을 주신 창조주 앞에 감사하며 더 많이 표현하

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진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 노년으로 익어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고령이란 단어가 가까이 느껴질 때면 외로움과 아픔을 호소하게 되지만, 주님 손잡고 가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쫓아지는 소낙비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를 하늘문 열고 주고 또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받으면서 돌아오니, 벌거벗은 노스릿지 산들도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고 반겨 주었습니다.

목회부, 교구장, 구역장, 봉사위원들이 철저히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드림구역도 아직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효자와 효녀로서 후회없는 삶으로 칭찬받는 하늘나라 백성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김신실 기자 |

■ 구역모임 (플러튼 8-3)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며 아프리카 사랑 동참도

8교구 3구역 구역예배가 조성운 집사, 조근희 피택권사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같이 모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구역 식구들이지만, 이렇게 구역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면 또 반갑고 행복해집니다.

구역장이신 김찬준 집사님의 인도로 구역 공과공부를 먼저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며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을 해결하려고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 하나님과 씨름하신 송상화 장로님의 간증, 공과말씀 때문에 한 밤 중에 잠에서 깨어 고민하고 기도하셨다는 김찬준 집사님, 이런저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동안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마치고 중보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기호숙 피택권사님의 아들인 패트릭의 눈병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수술의 결과가 좋고 의사가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구역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또

이민 생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남성우,지아나 집사님과 어린 율이 한 달 간 다녀온 아프리카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듣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간다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5개국을 한 달간 가족 모두가 다녀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또 거세게 몰려오는 이슬람과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사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가져오신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30불이면 염소를 한 마리 살 수 있고, 이 염소 한 마리가 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말에 많은 구역원들이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목사님 말씀을 실천하고 돌아오신 남 집사님 가정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조성운 기자 |

주안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말씀과 예배... 하나님 임재 체험

저와 최혁 목사님의 만남은 미국에 처음 와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목사님께서 아직 전도사님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실 때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좋은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목사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저희대로 다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최 목사님께서 Fullerton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왔고 목사님을 뵈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도 저를 알아보시고 오셔서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현주 집사(플러턴)

목사님의 말씀은 물론 좋지만 새가족팀의 여러 분들이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역도 배정해주시고 구역 식구들도 모두 오랜 옛 친구들처럼 친근감있게 대해 주셨구요. 교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맞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먹함 없이 오래 다닌 교회처럼 바로 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들과 먼저 나오는데 아들도 주안예교회가 좋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모두 친절해서 주일날이면 아들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서두네요.

무엇보다도 주안예교회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좋습니다. 구역예배를 드릴 때 나누어주시는 간증을 들으며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등의 주안예교회의 문화가 세속화된 다른 교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배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온 교우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게 닥쳐지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문제들에게 굴복되지 않고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그에 부응하여 자신과 가정을 다스려 나갈 때 이 세상도 변화되리라 믿고, 주안예교회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을 주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예배의 은혜·감동 잊을 수 없어

저의 교회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 습니다. 최근에는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누군가로부터 목사님의 말씀CD를 받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교회가 30마일이 넘어 조금은 망설였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생각해 보니 더 멀리도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장성은 집사(플러턴)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은 찬양 사역을 해왔었기 때문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어 사는 저를 목사님이 야단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야단치셨지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똑같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의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너무도 진부한 말씀이 주안예교회에 와서 첫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제 영혼을 흔들고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은 가슴이 내내 뜨거웠고 회개의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안에 교회에 와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가대에 합류하였습니다.

매주 감동이 넘치는 예배와 예배 뒤에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지휘자 집사님과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바로 내 집처럼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교회가 집에서 조금은 멀지만 또 그만큼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이 길지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주신 말씀을 되짚어 생각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남편(장남식 집사)도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을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주안에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저희 부부를 하나로 깊이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면서 계속> 동성애를 인정하고 마약을 합법화하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좀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솔직담백한 소통이 가능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어둠이 내 아이들 끌고 가기 전 내 아이 앞에 빛을 밝혀 진실과 대면하게 하여야겠다.

또한 요즘 당연한 듯 말하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여섯살 아이의 눈높이에서 엄마가 같이 6살이 되면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언제부터가 친구같은 부모가 멋진 부모

인양 할리우드 영화를 포함한 많은 미디어가 떠들지만 부모는 부모다워야 한다. 모든게 빛처럼 빠르게 변하는 요즘, 자녀들이 직면하는 다양하고 낯선 문제를 같이 당하는 친구가 아닌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습에 충실하셨듯이 부모는 부모다워야 한다. 내 자녀의 문제는 부모인 내가 제일 먼저, 가장 절실히 그리고 충심을 다해 풀어나야 마땅하다. 그것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나"로 칭지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최우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우신 뜻에 따라 먼저

된 자로써의 책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참된 길라잡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뒤섞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나도 완벽한 안경을 끼고 희뿌연 안개속 같은 세상을 밝히 보는 지혜를 간구하며 길을 잃고 헤매이는 내 옆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어야 하는 사람들은 잊지말고 동행하길 힘쓰는 하나님의 용사되기 부족함이 없는 주안예교회 성도되길 온맘을 다해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 영화 소개 [Hidden Figures]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가는...

1960년대 냉전시대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NASA프로젝트의 숨겨진 천재들의 실화를 그린 작품 히든 피겨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찍은 우주강국 미국의 위업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인재가 있었다.

지금도 피부로 느끼는 인종차별이지만 영화속 차별은 눈물난다. 유색인 버스, 도서관, 유색인 지정 컴퓨터, 지정 식당, 지정 화장실, 지정 커피포트 등 보편성에 묻힌 엄청난 편견과 차별은 의식할 틈도 없이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행해진다.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 말도 안되는 일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해 보여 이 질서를 깨야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흑인 지정석이 있는 버스를 타기 싫어서 고물 자동차로 같이 NASA로 출퇴근하는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은 수학, 물리, 기계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흑인 여성들이다. 온갖 편견과 차별에 맞서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는 요즘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 세우겠다는 장벽보다 더 높고 두꺼운 무너트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영화 속에서 흑인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백인들은 악인이 아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대로 그전에 했던 대로 살았을 뿐이다. 매일 두세번 800M떨어진 흑인전용화장실을 숨가쁘게 뛰어야 했던 캐서린의 삶을 의식하지 못했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필수 과목이 백인고등학교나 대학에만 있다는 것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 생각지 않았다.

하루에 몇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800M를 달려야 했고 그녀가 손엔 커피를 먹지 않으려고 커피포트를 나눠줬다는 걸 깨닫자 본부장 알린 해리슨은 NASA내 흑인전용 화장실을 없애버린다. 능력은 있으나 업무를 내지 못하는 메리를 격려하여 백인고등학교에서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필수과목을 듣기위해 소송까지 불사하게 만든 것도 백인 상사였다.

그 시절 백인들은 그들이 흑인들의 꿈을 짓밟고 핍박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가치를 모두 역행하여야 할지라도 그 벽을 넘어서는 용단을 내려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요청과는 다를 때가 허다하기에 마음을 새로하여 하나님의 히든 피겨스가 바로 우리 주안예교회 성도들이길 꿈꾼다.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올 부활절엔 부활절 전통요리 햄과 함께 가반조콩과 아보카도를 버무린 샐러드를 상에 올려봐도 좋을 것 같다. 조리방법이 쉽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가반조콩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여 알과 심장병의 발병을 줄여준다는 아보카도를 재료로한 영양식인 아보카도 가반조콩 샐러드는 육류요리와 함께 상에 올려도 좋고 보리빵 만으로도 한 끼가 되는 완전한 요리이다. / 박창신 기자

Avocado Chickpea Salad



재료 삶은 가반조콩/병아리콩 2 컵(16온스), 아보카도 2 개(작은 크기-납작하고 작게 썬), 썬 란트로 1/3 컵(잘게 썬), 붉은 양파 1/3 컵(잘게 썬), 다진마늘 2 쪽, Feta Cheese 1/3 컵, Lime 1 (Juice), 다진마늘 2 쪽, 소금, 후춧가루 취향대로

조리법 1. 아보카도를 뺨 모든 재료를 중간 크기의 용기에 넣고 잘 섞은 후에
2. 아보카도를 마지막으로 넣고 섞어 완성시킨다.
3. 보리빵과 함께 상에 올린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밸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4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은,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